강진군 "태양광 발전소 건립 더 이상 不許"

고용 창출 효과 없고 환경 훼손…주변 주민 민원도 빈발

전국 지자체 중 첫 사례…부작용 최소화 제도 정비 시급

강진군이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경관 훼손이 심각하고 고용창출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강진군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의 상징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육성하고 있으나 그 폐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첫 사례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에 따르면 정부의 특혜조치에 따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하고 있지만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대한 시너지가 사실상 전무해 앞으론 건립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강진군은 태양광 발전소의 투자유치를 이미 중단했으며 전남도를 통해 접수된 건립사업도 사업자에게 포기를 종용하기로 했다.

강진지역은 지난해부터 8곳에 발전소가 건립돼 1만7천300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16건이 허가된 상태다.

태양광발전소는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설립이 잇따라 도내 총 발전용량은 336㎿ 규모로 전국의 절반이 넘는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소는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투자유치를 벌였으나 산림과 농경지 훼손이 심각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사실상 전무한 데다 주변지역 개발행위까지 제한하는 등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형질변경을 통해 야산이나 농지 등을 개발한 뒤 거액의 차액을 챙기고 되파는 등 투기행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사업성이 없어 발전시설을 중도에 포기해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태양광 발전시설물 유지를 위한 제초제 살포 등으로 인한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상당수 투자자들이 농지전용 등에 따른 환경성 검토를 피하기 위해 면적을 쪼개거나 정부의 지원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발전 규모를 줄이는 이른바 '꼬마 발전소' 건립도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태양광 에너지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 피해 및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곡성 사과 선별작업 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추석을 앞두고 출하가 시작된 곡성사과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지난 3일 곡성군 사과영농조합법인 선별장에서 공동 선별작업을 실시했다. 곡성군 사과영농조합법인에서는 오존수를 이용한 세척과 공동선별 및 판매를 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경찰에 도움 요청하다 범행 발각

쌍고동

○…차량을 절취한 절도범이 스스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범행이 발각돼 철창 신세.

○…지난 5일 밤 11시께 A씨(32)는 신안군 지도읍 송도선착장에 주차되어 있던 신모씨(49) 소유의 1t 포터 차량을 훔친 뒤 광주로 도주하다 함평군 엄다 치안센타 앞 노상에서 차량 연료가 떨어지자 돈을 빌려 달라며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함평경찰서 남부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차량을 검문, 도난 차량임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발로뛰는 '세일즈 해남' 성과 톡톡

郡, 재정부·국토부·농식품부 등 잇따라 방문

복합농업단지·국도 확장 등 현안사업 해결

해남군이 중앙부처를 집중 공략하는 '세일즈 해남' 프로젝트를 통해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은 최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군은 이번 방문에서 첨단복합농업단지 조성과 농산물 유통전략 추진, 옥동지구 배수개선 사업비로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농림식품부에 배후연관 산업단지 조성지원을 적극 건의해 3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해남 옥천~강진 도암간 국도 18호선 4차선 확장 지원 건의(공사비 679억 원)와 함께 2008년도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육시설지원 협약 체결을 통해 우수영 관광지와 유스호스텔을 연계한 동계훈련장 조성 사업비로 3억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해남읍 해리에 조성 예정인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 사업비 30억 원 중 15억 원에 대한 지원도 확답을 받아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금융기관 종사자 강·절도 예방교육

완도경찰 읍내파출소

완도경찰서(서장 정광록) 읍내파출소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내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강·절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완도 읍내파출소(소장 김옥식)는 지난 4일 농협군지부와 완도농협, 광주은행, 밀알 신협 등 12개 금융기관 실무자 2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강·절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김옥식 소장은 "대다수 금융기관들은 CCTV 에만 의존하고 있어 사고예방에는 허술하다"며 "경찰관들의 순찰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체 방범 의식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광주 광산구 '기초생활 보장' 전국 최우수기관

보건부 232개 지자체 평가

저소득층 생계보장 등 우수

광산구가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2008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에서 기초생활 보장분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따라 전갑길 광산구청장 〈사진 오른쪽〉이 지난 5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제 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광산구는 지난 5월 부터 2개월간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신규수급자 적극 발굴 ▲수급자 급여 변경 ▲긴급지원사업 ▲서비스 연계 등 기초생활보장업무 전반에 걸쳐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저소득층 생계 보장, 자립·자활 기반 구축을 위한 능동적이고 창의적 대처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산구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해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연계하는 능동적 복지 네트워크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광산구는 '희망복지광산 공공기관협의회' 발족, '1종교 1가정 사랑나눔 사업', '복지광산 주민생활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관내 민간 병원과 연계한 '의료서비스 후원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갑길 구청장은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저소득층 복지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면서 "창조적 발상으로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고 자립기반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 새 얼 굴 /

"체계적인 학력관리시스템 구축"

서 상 락 나주 교육장

"창의적 인재 육성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일 부임한 서상락(60) 나주교육장은 "체계적인 학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문화의 계승 교육을 통한 수준 높은 교육 브랜드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 출신인 서 교육장은 조선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1976년 교단에 첫 발을 내디딘후 해남 황산실업고 교장, 도교육청 중등장학관, 진도교육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무안 현경중 교감인 부인 강옥자(58)씨와 사이에 1남 2녀가 있다. 취미는 테니스와 수영.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강진 군동농협 '8월의 농산물품질경영대상'

'판매사업·유통혁신' 공로

강진 군동농협(조합장 김재원 사진)이 농산물 판매사업과 유통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농협중앙회로부터 8월의 '농산물품질경영대상' 수상조합으로 선정됐다.

군동농협은 농산물 유통을 경영관리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노력한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11억원이 증가한 50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김재원 조합장은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농산물을 생산, 직판행사와 대도시 연계판매 등 유통혁신을 통해 대대적인 판로개척에 나선 게 큰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농업개방에 대비할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